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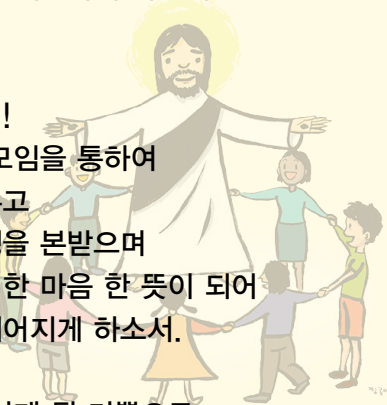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대림 제2주일(12월 8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3,1-12)



세례자 요한의 설교

—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1486-1490년, 프레스코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플로렌스 소장 —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 세례자 요한이 강조한 회개는 불안정하고 잘못된 생활에서 새로운 희망과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는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시기의 삶의 자세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12. 8.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91장 “구세주 빨리 오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3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4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 풀이었다.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또 손에 열쇠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8)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태 3,11)

판공성사를 앞두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느님께 고백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당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당대에 의인으로 자처하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세례자 요한은 한층 더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느님 나라를 향한 내적 쇄신으로써의 회개,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살아가야 할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하느님의 요청입니다. 빈말만 앞세우고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주저하는 신앙,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전례 생활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신앙인들에게,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을 향해 꾸짖은 세례자 요한의 책망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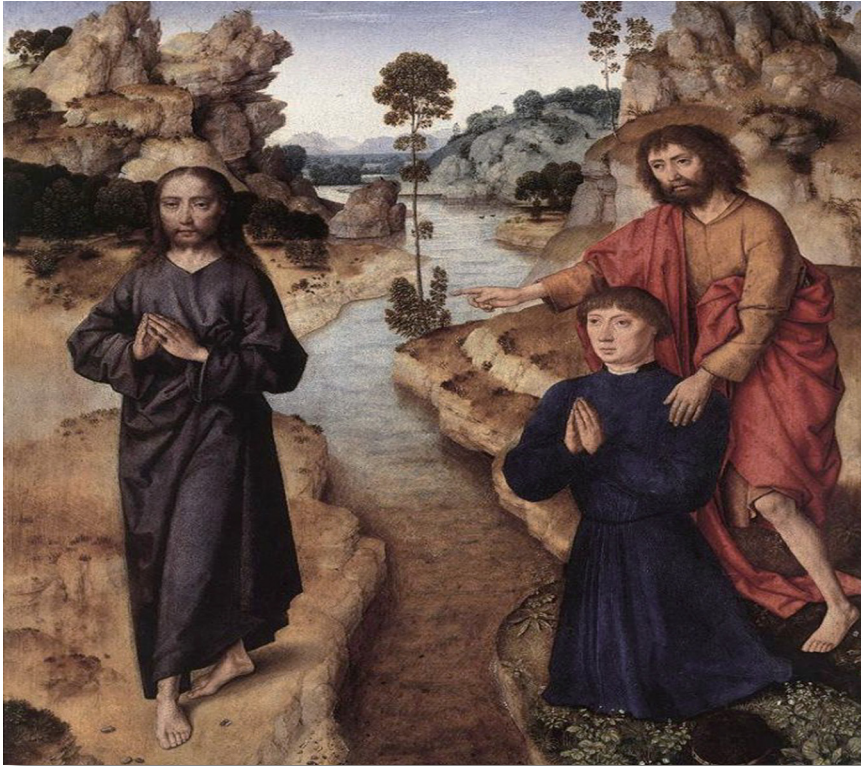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92장 “구세주 내 주 천주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대림 제3주일(12월 15일)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 11,2-11)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 디에릭 보우츠, 1462-1464년, 목재,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 독일 -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리고, 이를 기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대림 제3주일인 오늘을 '환희의 주일', '기쁨의 주일'이라 부릅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강생의 신비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의 복음』(102항) 이 만남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생명의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강생의 신비는 모든 인간 생명이 갖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지영현 시문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12. 15.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93장 “임하소서. 임마누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슴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마태 11,5)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마태 11,6)

푸석거리는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셔 줄 비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마음을 적셔 주고 공동체에 힘을 주는 활력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기 위해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혹시 각자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이곳 저곳 소문난 곳을 찾아 헤매지는 않습

니까? 훌륭한 강론, 분위기 있는 기도, 능력이 드러나는 모임 등을 찾아다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곳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허전한 마음으로 또 다른 곳을 찾아가게 되지요.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전례와 공동체 모임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라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쁨의 소출을 기다립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96장 “하느님 약속하신 분”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106년 전통의 자부심

-함양본당 원교구역-

1839년 기해박해로 피난해온 교우들이 백전면과 서하면 산록에 교우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911년 5월 대구교구가 설립되고 이상화(발토로메오)신부가 주임신부로 부임하시면서 1913년 함양본당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로 신자수가 증가하여 1967년 김석좌 신부님 부임 시절 신자가 3,638명으로 교세가 확장되었고, 1980년에는 수녀원이 설립되어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함양본당은 1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노령화와 유입 인구 감소, 지역 특성상 신자가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함양읍을 중심으로 8개 구역만이 실질적으로 소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전의 성당이 위치했던 원교마을은 106년 전통의 신앙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자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며 깊은 영성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자가 주로 80~90대의 독거 세대인 구역의 특성상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가족처럼 보듬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공동 지향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수녀님을 모시고 20여 명의 신자가 모여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필사, 성체조배, 기도 등의 체득된 신앙생활을 통해 개인 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어른을 모시는 비교적 젊은 신자들이 본당의 대소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특히 장례 때에는 더욱 정성껏 내 일

처럼 봉사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함양본당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 성전이 건립되어 더욱 단합되고 쇄신하는 본당으로 거듭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신호열 요셉 신부님의 사목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힘쓰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선교하는 소공동체 - 왜 선교해야 하는가?

소공동체와 선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선교는 일부 열심한 사람의 몫이라고 여겨 선교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은 본당 전체 신자 중에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선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요한4,16). 선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백히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는 성부의 사랑과 자비에서 분출한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의해 성자와 성령의 파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선교교령 2,3,4항).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며 최초이자 최대의 복음 선교자시다

예수님은 일생동안 복음을 선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 교회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마르 1,1; 로마1,1-3; 현대의 복음 선교 7,8항).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다(루가 4,43; 마르 2,38)

-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마산교구 평신도 신앙대학 제27기 모집

마산교구에서는 가톨릭 신학과 철학, 영성을 바탕으로 평신도 신앙인의 자질 함양과 세상의 복음화 및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목표로 ‘신앙대학’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신앙대학 제27기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기 간 : 2년 과정(1, 8월 방학) 매월 첫(토) 13:30~(주일)16:00(1박2일)
- 과 정 : 2020년도-사회교리(박창균 신부), 교부학(최원오 교수),
그리스도론(강철현 신부), 신약성경(정연우 신부),
교회법(김정훈(도) 신부), 성사와 전례(김정우신부)
2021년도-영성신학, 윤리신학, 구약성경, 교회론, 성령론·마리아론, 철학
- 지원자격 : 영세한지 만2년 이상 된 평신도로 본당 주임 사제의 추천을 받은 자(만65세 이하)
- 졸업특혜 : 신앙대학 졸업장, 교리교사 자격증 발급
- 개 강 일 : 2020년 2월 1일(토) 오후 1시(O/T 및 입학미사)
- 등 록 비 : 교육관 숙박비 선택(2인실: 54만원, 4인실: 44만원)
- 교육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 지원마감 :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 지원방법 :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의 입학 양식을 작성하여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 주 소 : (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 연 락 처 : 사목국 055)249-7021~3